

말씀이 들리면 누구라도 살아난다

(사도행전 17:1-9)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 감옥에서 극심한 매맞음과 고초를 겪은 직후, 온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다음 사역지인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거리는 약 150~160km에 달하며 도보로 4~5일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찢히고 찢어진 상처 투성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에 맞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내가 받는 고통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고통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정 중에 바울과 실라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또다시 매를 맞고 돌에 맞아도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고백을 서로 나누었고, 디모데는 옆에서 이 감동적인 신앙의 대화를 들으며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피로와 부상을 무릅쓰고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사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이자 마케도니아의 행정수도로서, 로마 총독과 지배 계층이 몰려 살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는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을 면제받는 자유도시였기에, 오늘날의 두바이처럼 전 세계의 부유한 자들과 상인들이 몰려드는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당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데살

로니가를 일컬어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극찬했을 만큼, 그곳은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자부심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화려한 도시에 등장한 바울 일행의 모습은 값비싼 옷을 입은 상인이나 품위 있는 외교 사절단과 달리, 겉보기에 매우 남루하고 불품없는 행려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진 매를 맞아 살점이 터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초라한 몰골의 바울 일행은 외형적으로 데살로니가의 상류층이나 귀부인들이 상종할 만한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문 약 3주 동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대형 부흥회나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사업의 번창, 혹은 무병장수를 약속하는 세상의 변영 신학과 거리가 멀었으며, 오직 성경의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심과 부활만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를 향하고 있으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야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복음의 본질만을 담담히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불품없는 외모와 투박한 복음 선포 앞에서, 성경을 잘 알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단순한 인간적 추종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걸어간 복음의 삶에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합류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세련된 상류층 사람들은 바울 일행의 비참한 외모와 행색을 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를 들었으며,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에 합류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가 있습니다. 시편 119: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며, 말씀 그 자체가 심령에 들리기 시작하면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와 같은 영혼도 누구라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일치시키고 합류시키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 시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토를 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팡이를 던지고 행하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는 주님의 황당하고 무모해 보이는 명령에 어떠한 미사여구나 변명을 보태지 않고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인들이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물었을 때도 제자들은 정중한 설득이나 꾸밈없이 오직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그대로 대답했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을 때, 하인들이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떠다 주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복사하여, 하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